

2022년 7월 24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Sent Out by the Holy Spiri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Acts 13:4-12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So,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they went down to Selucia,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Cyprus.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they had John to assist them.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When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as far as Paphos, they came upon a certain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He was with the proconsul, Sergius Palulua, a man of intelligence, who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But Elymas the magician (for that is the meaning of his name) opposed them, seeking to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But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intently at him.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And said, “You son of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full of all deceit and villainy, will you not stop making crooked the straight paths of the Lord?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And 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unable to see the sun for a time.” Immediately imst and darkness fell 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people to lead him by the hand.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occurred, for he was astonish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오늘 말씀은 제1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증거합니다.

선교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영성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후파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제2차 선교여행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일행을 초청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사도행전 Acts 16:9c

후파 성도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조만간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사역은 물론 오가는 길 운행도 모두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심으로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So,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they went down to Selucia,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Cyprus.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에 내려갔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 속한 항구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탔습니다. 마주 보이는 섬 구브로(Cyprus)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는 구리가 많이 나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이름이 “구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0:4에 “엘리샤”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주전 57년에 로마제국에 합병되었고, 주전 22년에 독립된 “주”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행정관인 “총독”(proconsul)이 다스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당시 총독은 “서기오”(Sergius Paulus)였습니다.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they had John to assist them.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 살라미(Salamis)에 도착, 배에서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거리에서나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s first and also to the Greek.
로마서 Romans 1:16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9-11장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my kinsmen according to flesh.
로마서 Romans 9:3

이런 간절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그들, 곧 바울의 형제, 바울의 골육의 친척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 줌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They are Israelites, and to them belong the adoption, the glory, the
covenants, the giving of the law, the worship, and the promises.

로마서 Romans 9:4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 모든 소중한 것을 저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죄는 크고 큰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 중에 바울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유대인도 포함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디모데전서 1 Timothy 2:4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 구원을 마음에 두고
선교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실망이 큰 바가 없이 않았으나.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And Paul and Barnabas spoke out boldly, saying,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be spoken first to you. Since you thrust it aside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ternal life, behold, we are turning to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13:46

그러나 이것은 그 때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유대인 구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호세아의 경우에, “로암미,
로루하마” 하셨던 하나님께서 “암미, 루하마” 하셨습니다.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참 사랑으로써.

살라미 (Salamis). 구브로 동쪽 끝 항구도시인데 유대인이 많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진작에 유대인 정착이 진행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요한 마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요한 마가가 그들 두 사람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When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as far as Paphos, they came upon a certain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섬을 지났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서쪽 끝 바보(Paphos)라는 항구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보(Paphos)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Bar-Jesus, 예수의 아들)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He was with the proconsul, Sergius Palulua, a man of intelligence, who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그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의 “고문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술사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예수는 어리석고 악령이 지배하는 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합니까?

때때로 인간적인 지혜는 그 끝이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총독이 어리석은 자를 곁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훌륭한 왕이 간신들을 곁에 두는 경우가 역사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우 그들은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또 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마술사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성령님에 감동된 이 두 사람에게 감화된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의 선한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만남일지라도, 성령님은 어떤 다른 악령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오래 된 도시와 문화를 잠시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주치는 순간마다 수 천 년 오랜 역사와 문화, 거짓 영의 역사가 눈이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But Elymas the magician (for that is the meaning of his name) opposed them, seeking to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그런데 그는 엘루마(마술사)였습니다. 무릇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전파를 훼방했습니다. 악한 영이 마술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평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But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intently at him.

그 때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때가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때입니다. 성령충만한 때였습니다.

바울이 마술사를 주목했습니다.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And said, “You son of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full of all deceit and villainy, will you not stop making crooked the straight paths of the Lord?”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마술사는 모든 그의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예수”였는데, 그 뜻은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과 위선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시면 숨긴 것이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These things God has revealed to us through the Spirit. For the Spirit searches everything, even the depths of Go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2:10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And we impart this in words not taught by human wisdom but taught by the Spirit, interpreting spiritual truths to those who are spiritual.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2:13

성령님의 의해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성령님께 충만한 그들이 이 거짓 마술사의 실체를 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And 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unable to see the sun for a time.” Immediately imst and darkness fell 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people to lead him by the hand.

바울이 마술사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의 위에 역사하여, 그가 맹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즉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술사는 손을 더듬어 도울 자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것을 연상합니다.

그는 악령이 가득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광채가 그를 비추어 그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마술사로부터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요? 일부 학자들은(Venerable Bede, F.F. Bruce 같은) 여기서 바울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던 것처럼, 이 마술사도 결국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occurred, for he was astonish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마술사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후에 일부 학자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의 집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입니다. 1960년 8월 16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2021년 추정으로 인구가 약 1,224,188명인데, 그중 72.3%가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여행에서 사실상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가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룬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2천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과 강권하심의 열매입니다. 약 20%가 이슬람입니다. 종교분쟁지역이기도 합니다.

구브로(Cyprus)에서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의 방해를 물리친 바울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령님께 충만한 사도로서 복음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성령님께 충만합니다.

바울 일행은 셋입니다.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 요한, 그리고 그 자신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교회 일행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이즈로 볼 때 바울 일행보다 크고 견고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더욱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금문교회를 선교 베이스캠프로 삼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지난 주 월요일 후파 성경공부 때 네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족장 조 데이비스가 참석 직전에 사정이 생겨 불참했습니다. 참석자 중에 세이커 목회자였던 노린이 있습니다. 그가 남편 헤롤드와 함께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성령충만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후파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콜롬비아와 중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얻어 반대하는 자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복음말씀 그대로, 저희가 성령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전도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